

2023년 4월 2일

금문교회 종려주일예배 GGPC Palm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aloud,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Righteous and having salvation is he.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I will cut off the chariot from Ephraim, and the war horse from Jerusalem. And the battle bow shall be cut off, and he shall speak peace to the nations. His rule shall b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스가랴 Zechariah 9:9-1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2023년 종려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말씀을 성취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억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동참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고난 중인 이 세상에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a]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b]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23-26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심을 기념합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멜리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이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성찬예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모두 초청합니다.

성전청결 Cleansing the Temple

마태복음 Matthew 21:12-17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And Jesus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all who sold and bought in the temple,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pigeons.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하시니라.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make it a den of robbers.”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aw the wonderful things that he did, and they children crying out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And they said to him, “Do you hear what these are saying?” And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prepared praise’ ?”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And leaving them, he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and lodged there.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나귀 타시고 입성한 사건은 스가랴 9:9-10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호산나 외친 것은 시편 118:25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Save us, we pray, O Lord!
O Lord, we pray, give us success!
안나 YHWH, 호시리아호 나!
안나 YHWH, 하첼리아카호 나!
시편 118:25

그에 앞선 시편 118:22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The 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This is the Lord’s doing.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시편 118:22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완성” 입니다. 이는 창세기 3:15, 21을 포함, 셀 수 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을 주목합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알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당장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물리친 “성전개혁” 사건의 예언성취입니다. 요시아 등 많은 왕들이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개혁사건들입니다.

구약의 개혁과 예수님의 성전청결을 이어, 지난 2천년 동안 많은 교회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기할 것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깃발을 세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2023년에도 우리는 말씀의 빛에서 교회개혁을 실시합니다. 팬데믹과 메타버스 등 과학발전의 그늘에서 교회는 말씀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금문교회는 새로운 영적 개혁의 깃발을 높이 세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아멘신앙으로써. 아멘.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And Jesus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all who sold and bought in the temple,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pigeons.

예수님께서 어린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성전 안은 “강도의 소굴” 이었습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셨습니다.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make it a den of robbers.”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These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make them joyful in my house of prayer. Their burnt offerings and their sacrifices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For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s.
이사야 56:7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서 두 가지 다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는 “분노” 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휼” 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all who sold) 돈 바꾸는 자들을(money-changers) 향하여 분노(anger)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맹인과(the blind) 저는 자들은(the lame) 공휼(compassion)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입성하셨을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잘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당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허락” 받은 일이었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한 자들이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성전 안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영역” 바깥에 있던 자들입니다. 성전은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열 두 해 혈루병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던 것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붕을 뜯어낸 친구들도 생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용기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렸습니다. 왜요? 주님께서서 환영하시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S), 다 내게로 오라(P).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R)!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마태복음 Matthew 11:28

SPR. 새 창조와 새 구원의 길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고쳐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서 그들을 환영,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aw the wonderful things that he did, and they children crying out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마태는 이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옮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그가 누구이기에? 감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밖에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는데, 이제는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내내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고 계셨을 때도 그들은 “호산나!” 외쳤습니다. “응원” 하는 부대처럼! 그것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는 것이 시간상 “꽤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시작하여 성전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호산나!” 외침이 “간절” 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나, “호산나!” 외치는 “어린이들” 이나, 구원을 사모하기는 일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입성하셨는데도 “분노” 로써 대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And they said to him, “Do you hear what these are saying?” And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prepared praise’ ?”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들으실 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침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찬양” 이며 “기도” 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면 “전문 종교인” 입니다. 성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Out of the mouth of babies and infants, you have established strength because of your foes, to still the enemy and the avenger.

시편 Psalam 8:2

어리고 약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 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대적 앞에! 이로써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입 다물게 하시는 대신, 그들의 기도 찬양을 들으신 것입니다.

어린이들 아니라면? 심지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He answered, “I tell you, if these were silent, the very stones would cry out!”

누가복음 Luke 19:40

돌들이라도! 세상에! 역사 이래 언제 돌들이 소리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광야, 빈들에 바람이 훑고 지나갑니다. 바람소리가 돌들을 스치면서 소리를 냅니다. 바람소리입니까, 돌들 소리입니까? 바람은 “루아크.” “성령” 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처럼 침묵하던 자도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합니까?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This is the Lord's doing.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시편 Psalm 118:23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자입니다. 소리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사도행전 1:8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가슴을 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이한 것입니까? 무엇을 여호와께서 행하셨기에? “구원”입니다. 구원은
기이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선포” 할 일입니다. 돌들처럼 일생
침묵하며 살았을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천대받으며 인정받지 못하고 지냈을지라도!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주님을 박해하다가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구원 받은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But God chose what is foolish in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what is
weak in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God chose what is low and despised in the
world, even things that are not, to bring to nothing things that are, so that no
human being might boast in the presence of Go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7-29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강한 자”와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와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바울의 “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It was not because you were more in number than any other people that the Lord set his love on you and chose you. For you were the fewest of all peoples.

신명기 Deuteronomy 7:7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 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 And you shall remember the whole way that the Lord your God has led you these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that he might humble you,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t. 3 And he humbled you and let you hunger and fed you with manna, which you did not know, nor did your fathers know, that he might make you know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 word[a]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신명기 Deuteronomy 8:2-3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오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어리고, 맹인처럼 보지 못하며, 장애인처럼 몸을 가눌 수 없는 우리를!

보십시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And leaving them, he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and lodged there.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나병환자들” 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거기 유하셨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곳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을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와 베다니에서 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며 부활을 증거하시고, 선교사명을 주신 이후, 승천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자들과 동행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광야 길로 몰아내신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써 주님과 동행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여섯 시간은 특별히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가능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에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산나 외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안까지 따라 들어온 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성전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어린아이들처럼, 병자들처럼, 주님의 전, 성전에 이르게 하옵소서. 거기서 기도와 찬양이 응답되고, 병이 고침 받으며, 그 죄가 용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